

계획의 실패 속에 숨겨진 축복

사도행전 23:12-22 KRV (개역한글)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사십 여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 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한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가로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가로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저희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저희 청함을 좇지 마옵소서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사십 여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고하였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1. 원수는 혼란과 혼돈을 통해 역사합니다.

다음 달인 10월은 쿠바 미사일 위기(Cuban Missile Crisis) 64주년이 되는 달입니다.우리 대부분은 그 당시를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쿠바 미사일 위기는 냉전 시대의 가장 중대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제2차 세계대전 당시 공산주의 국가였던 소련과 미국은 독일과 일본에 맞서 싸우기 위해 연합국으로 함께했습니다. 연합국이 승리한 이후 세계는 사실상 공산주의 동방을 대표하는 소련과 자본주의 서방을 대표하는 미국을 중심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승전국들은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아메리카 지역에서 각자의 영향권을 형성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공산주의 북베트남과 자본주의 진영의 지원을 받는 남베트남이 충돌했습니다. 한국전쟁 역시 비슷한 구조였습니다. 공산주의 북한과 자본주의 진영의 지원을 받는 남한이 대립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제 전쟁들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의 대립 대부분은 직접 총을 쏘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냉전(Cold War)***이라고 부릅니다.그러나 실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위협은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협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쿠바 미사일 위기였습니다.

1959년, 피델 카스트로가 폴헨시오 바티스타 정권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장악하면서 쿠바는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그전까지 미국은 쿠바와 경제적으로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쿠바 혁명 이후 미국과 쿠바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미국은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와 봉쇄를 강화했습니다. 쿠바는 결국 소련과 더욱 가까워졌고 소련으로부터 보호를 구하게 되었습니다.그러자 소련은 쿠바에 핵미사일을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무기가 미국과 매우 가까운 곳에 배치된 것입니다. 당시 취임한 지 약 1년 반밖에 되지 않았던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소련과 정면으로 맞서며 쿠바에서 미사일을 철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비공개 접촉과 비밀 협상이 이어진 끝에 결국 합의가 이루어졌고, 소련은 쿠바에서 미사일을 철수했습니다. 그러나 약 2주 동안 전 세계는 핵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긴장 속에 있었습니다.당시 사람들은 핵무기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불과 17년 전,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면서 엄청난 인명 피해와 파괴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소련의 미사일이 미국을 향해 날아가고, 실제적이고 끔찍한 파괴가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쿠바 미사일 위기는 냉전이라는 시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엄청난 긴장과 위협이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최악의 상황을 예상했지만, 결국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나 눈에 보이는 놀라운 사건을 기대합니다. 세상을 뒤흔드는 사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기적,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이 가장 큰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실패한 계획이 가져다주는 축복” 오늘 본문에서 실패한 계획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암살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음모가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핵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첫 번째: 원수의 계획은 항상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회색지대에서 움직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사도행전 23:12-15

날이 밝자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며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 음모에 가담한 사람은 40명이 넘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찾아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공회가 바울의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조사하려는 것처럼 천부장에게 요청하여 바울을 여러분에게 데려오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가 이곳에 도착하기 전에 그를 죽이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바울이 부활에 관해 말하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심각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분명 바울을 제거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쩌면 그가 죽기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신을 변호한 이후 그들 자신도 서로 갈라져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바울이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 그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오늘 본문의 사건이 시작됩니다. 한 무리의 유대인들이 나타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을 얼마나 미워해야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맹세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의 계획을 세웁니다. 성경은 이것을 ***음모(conspiracy)***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합법적인 절차를 우회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에게 이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바울의 사건을 더 자세히 조사해야 한다는 이유를 만들어 천부장을 속이고 바울을 다시 이곳으로 데려오십시오. 그러면 그가 오는 길에 우리가 매복했다가 죽이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들은 이 계획에 동의했을까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도 대제사장들이 이 제안에 무엇이라고 대답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 상황을 보면 그들이 이 음모에 어느 정도 협조하려 했던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쉽게 유대 지도자들에게 접근하여 자신들의 계획을 제안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원수의 목적은 처음부터 존재했습니다. 원수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어떻게 실행하는지는 항상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원수는 어둠과 회색지대를 이용합니다. 이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 군인들은 자신들이 큰돈을 주고 얻은 로마 시민권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습니다.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 그리고 율법 교사들은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조차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0명이 넘는 사람들은 바울이 하루라도 더 살아 있는 것을 보기보다는 차라리 굶겠다고 맹세합니다. 혼란, 분열, 시기, 분노, 미움. 이러한 환경 속에서 누가 활동하기 쉬울까요? 원수, 곧 사탄입니다. 바로 이러한 혼란 속에서 원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자신의 계획을 진행하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선하지만, 죄와 악은 인간의 삶 속에 혼란과 시기와 분노와 미움을 가져왔고, 원수는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여 파괴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원수는 바울 앞에 직접 나타나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그렇게 할 권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 공생애를 시작하려 하셨을 때 사탄이 직접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를 물리치셨을 때 그는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수는 인간의 악함을 이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40여 명의 사람들의 분노와 증오를 이용했고, 종교 지도자들의 혼란을 이용하여 바울을 제거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원수의 역사는 1세기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그는 인간의 악함을 이용하려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불안하십니까?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 혹은 미움이 있습니까? 삶이 너무 혼란스럽고 정신없이 돌아가서 마치 끝없는 경주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도록 분명한 목적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정과 교회와 소그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 있고 박해받고 있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침착하고 분명한 사람도 바울입니다. 그는 얼굴을 맞고, 여러 번 매를 맞을 위기에 처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잃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줍니까?

삶이 혼란스럽고 마음에 분노와 미움과 시기가 생길 때, 우리는 단순히 모든 것을 환경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악함과 상처와 죄가 원수에게 이용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행복하든 슬프든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나 분노와 미움, 시기와 혼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원수의 파괴적인 계획은 언제나 명확한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관계를 통해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가족 사이에 상처가 생기기도 하며, 정부나 제도와 법조차 잘못 사용될 수 있습니다. 원수는 바로 이러한 혼란과 깨어진 관계와 인간의 악함을 이용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길은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을 때는 원수의 계획을 제대로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시선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사람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던 것을 보게 하고, 원수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며, 다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핵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2.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도움을 보내십니다.

사도행전 23:16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여기서 우리는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바울에게 누이가 있었고, 예루살렘에는 그의 조카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등장한 이 조카가 그렇게도 예상 밖의 인물일까요? 이 말씀을 조금 자세히 살펴봅시다. 성경은 바울의 조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지 아닌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바울을 죽이려는 비밀스러운 음모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매우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 은밀하게

세운 계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조카는 이 계획을 직접 들었거나, 적어도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공동체와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지,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 젊은이를 사용하여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셨습니다. 바울은 조카가 전해 준 이야기를 듣고 한 백부장을 불러 말합니다.

사도행전 23:17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여기서 바울이 조카를 가리켜 사용한 헬라어는 νεανίσκος(neaniskos), 즉 “청년(young man)”입니다. 따라서 그는 어린아이라기보다는 상황을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젊은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이 청년은 바울을 도왔을까요? 만약 그의 가족이 바울이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적 배경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면, 바울의 변화는 가족에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때 열정적인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조카는 바울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들은 것을 알려 줍니다.

이것은 정말 예상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한 사람이 나타나 그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실제 우리의 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혹은 우리와 전혀 다른 생각과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쉽게 “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 마음을 열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키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둘째, 바울은 가족과의 관계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에게서조차 이해받지 못하거나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미워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가족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와 거리를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먼저 그들을 끊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관계의 문을 열어 두어야 합니다. 바울과 그의 누이와 조카 사이의 관계에 대해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의 조카가 위험을 무릅쓰고 바울을 찾아와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행동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관계를 사용하셨습니다.

지난 4년 정도를 돌아보면, 제 아내와 자녀들을 제외하고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 중 제가 가장 자주 연락하고 만난 사람은 의외로 제 삼촌입니다. 제 삼촌은 할아버지의 남동생의 막내아들이며, 독실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삼촌과 숙모가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삼촌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열심히 번 돈을 치아 치료에 써야 한다면, 너한테 쓰는 게 낫지. 적어도 너는 믿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삼촌과 숙모가 치과 치료를 받기 위해 캘리포니아 테메큘라에서 피닉스까지 운전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치과 진료 하나 때문에 하루 만에 왕복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들이 올 때마다 말합니다. “제가 집 근처에 좋은 치과를 소개해 드릴게요. LA 지역에도 좋은 치과가 많아요.” 하지만 그들은 계속 이곳으로 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 때문에 저는 삼촌과 숙모, 그리고 두 아들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일본인인 숙모가 처음 만났을 때는 영어를 거의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영어로 긴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 것도 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적으로 매우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고, 삼촌도 제가 그의 신앙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언제든 그와 진리에 관해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강제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초대합니다. 그들이 질문할 준비가 되었을 때, 이야기할 준비가 되었을 때 언제든 찾아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비신자들이 오히려 우리가 보지 못하던 것을 보여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들을 통해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조카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선교의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오히려 우리를 성장시키기도 합니다.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그리고 그러한 선교지는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도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보내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간격을 이어 주는 다리가 되어 주고 있습니까? 때로는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사각지대(**spiritual blind spots**)를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마하트마 간디에게 한때 이런 질문이 주어졌다고 전해집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하면 인도 문화 속에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진 말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과 선교사들이 예수님을 좀 더 닮아 살아가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그리스도인이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얼마나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도전입니까? 저는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보내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과 진실한 관계를 맺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지 못했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시작하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행동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3.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은 우리를 행동으로 이끕니다.

사도행전 **23:17**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 사람, 바로 자신의 조카를 통해 그 음모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정보를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동할 수도 없고, 상황을 변화시킬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에는 마치 손발이 묶인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나는 능력이 부족해.” “나는 자격이 없어.” 특히 우리의 안전이나

영적인 건강과 관련된 어려움 앞에서는 더욱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리고 나는 살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알려 주신 정보를 가지고 바울은 행동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작은 행동 하나가 연속적인 사건들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주 본문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울을 매복하여 죽이려던 계획은 실현되지 못합니다.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원수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폭탄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의 도움과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을 통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바울이 직접 움직이고 행동함으로써 그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좋은 계획이 이루어지고 악한 계획이 저지되기 위해서는 때로 우리가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12-13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려운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원”과 “행함(work)”이라는 단어가 함께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구원을 얻기 위해 일하라(work FOR your salvation)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은혜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미 받은 그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라(work OUT your salvation)”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루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헬라어가 *κατεργάζομαι* — *katergazomai* 입니다. 이 단어에는 어떤 것을 끝까지 이루어 내다, 완성에 이르도록 실행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초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을 실제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제가 전에 제 드림카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1964년형 GTO 컨버터블입니다. 그런데 드림카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차고 안에 넣어 놓고 평생 바라보기만 합니까? 아닙니다. 차는 운전하라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달려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새로운 생명은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지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멋진 자동차를 차고에 넣어 놓듯이 그냥 가지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새로운 생명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우리의 선택과 행동과 관계와 삶을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원수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이용하여 바울을 죽이고 복음의 전진을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단순한 우연의 연속처럼 보일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바울의 조카가 등장합니다. 그 조카가 우연히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듣습니다. 그는 그것을 바울에게 알려 줍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바울을 보호하기로 합니다. 물론 그들이 바울을 보호한 이유가 반드시 의로움 때문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로마의 질서를 유지하고 문제를 막으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자신을 죽이려는 계획을 막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기회를 보고 행동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을 실제 상황 속에서 살아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동시에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행동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르심에 순종하여 행동할 때, 오늘 말씀의 마지막 포인트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자주 하나님의 축복은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어나지 않은 일” 속에 있습니다.

4. 때로 가장 큰 축복은 일어나지 않은 일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삶의 아주 평범하고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것들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까?

저는 지난 1월에 건강상의 문제를 겪었습니다. 갑자기 왼쪽 눈앞이 완전히 캄캄해졌고, 약 일주일 동안 그 눈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시력을 잃어 보기 전까지는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 만큼 시력을 대부분 회복했습니다. 그 일을 겪은 이후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한 가지 감사를 꼭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눈을 떴을 때 볼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언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을 당시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8:11-12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그 당시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사람들과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놀라운 것을 찾습니다. 우리도 기적을 원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구한 축복을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 계신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우리는 정작 더 큰 축복을 보지 못합니다. 원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길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이 없어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받은 구원을 삶으로 살아내기 전에 어떤 표적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너무나 많은 표적과 기적을 기다리느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수많은 일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따라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극적이고 놀랍고 믿기 어려운 기적만을 찾는다면,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동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조용하고 사랑스러운 음성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항상 함께하시는 주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놓칠

수 있습니다. 원수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이며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를 초대하고 싶습니다. 금요일 밤에는 **BVC**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소그룹에서는 서로의 삶을 나누며 교제합니다. 주일에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함께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봅시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섭리를 기뻐하며,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다시 발견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다음 큰 것(**the next big thing**)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혁신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뒤로 가고 있는 것이다.” 사실 우리의 믿음에도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믿음이 전혀 달라진 것이 없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살아내는 모습에도 아무런 변화와 성장이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의 영적인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처럼 믿음으로 움직이고 행동하도록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에도 특별한 축복이 있습니다. 매일이 너무 평범하게 느껴지고,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다듬고 계십니다. 우리를 빚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실 일을 위해 기초를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말씀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용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행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빚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원수의 계획을 막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준비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기적만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 숨 쉬고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볼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십시오. 때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계획 속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순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설교 나눔 질문

1. 바울의 조카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등장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시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나 상황을 통해 여러분을 도우시거나, 보호하시거나, 격려하시거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신 경험이 있습니까?
2.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를 알게 되었을 때 가만히 있지 않고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3. 빌립보서 2:12-13을 함께 읽어 보십시오. 일상생활 속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4. 우리는 극적이고 놀라운 기도 응답은 쉽게 알아차리지만, 일상의 평범한 축복들은 당연하게 여기며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일상의 축복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5.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한 걸음을 내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그 전에 어떤 “표적”이나 기적, 혹은 큰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